

## 현수문전의 英雄小說의 位相 研究

김 수 봉\*

### 목 차

- |               |             |
|---------------|-------------|
| I. 머리말        | IV. 顛倒된 君臣觀 |
| II. 內容構成의 綜合性 | V. 마무리      |
| III. 構造의 二代記性 |             |

### I. 머리말

현수문전은 주인공의 영웅적 행위를 결구한 영웅소설이다.

이 작품은 필사본·방각본·활자본이 두루 갖추어져 있으며 특히 방각본과 활자본의 출간 횟수가 영웅소설 중 10위권 안에 드는 작품이다.<sup>1)</sup> 그리고 그 내용은 영웅소설 중 군담의 비중이 가장 많은 작품이며<sup>2)</sup> 영웅소설로서는 가장 복잡한 플롯을 가진 작품이다.<sup>3)</sup>

뿐만 아니라 이 작품은 그 내용과 구조 그리고 君臣觀 등에 있어서 여타 영웅소설과는 상당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은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문학과 강사

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대 출판부, 1985) 25쪽.

2) 앞책, 248쪽.

3) 김기동, 『한국 고전소설 연구』(교학연구사, 1985) 355쪽.

영웅소설 중에서 상당한 주목이 요청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영웅소설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다른 작품과 함께 다루어지기는 했으나, 개별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아직 미흡한 상태다.<sup>4)</sup>

본고에서는 현수문전을 대상으로 이 작품이 영웅소설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작품의 내용, 구조, 君臣觀을 중심으로 그 位相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문학작품의 이해를 위해서는 작품 자체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작품은 시대적 산물인 동시에 다른 작품과의 상호 관련 속에서 생산되고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타 영웅소설과의 대비를 통하여 현수문전의 특징적 성격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연구의 대본은 활자본<sup>5)</sup>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 이유는 현수문전의 작품 내용은 필사본·방자본·활자본의 세 계열이 서로 현저히 다르고,<sup>6)</sup> 또 각각의 계열 뿐만 아니라 이본이 갖는 개별성을 증시하는 입장에서 보면, 각각의 이본도 어차피 독립된 하나의 각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이본간 내용이 거의 동일한 활자본 계열을 독립된 하나의 각편으로 보고 활자본 계열만을 대본으로 삼았다.

## II. 內容構成의 綜合性

영웅소설의 발달 과정은 그 상한선과 하한선의 설정에 있어서 이설이 많다.  
<sup>7)</sup> 그러나 상서기문에 영웅소설의 성격을 지닌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백전 등의 작품명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영웅소설의 출현 시기는 늦어도 정조 18년

4) 김종철, 현수문전 분석, 『인문논총』(아주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 1990) 등의 한 두편이 있을 뿐이다.

5) 『현수문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16,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6) 김종철, 앞 논문, 41-46에서도 각 계열 작품의 차이를 밝히고 있다.

7)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 1981) 286-301쪽 등 영웅소설을 다룬 논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영웅소설의 창작 시기 등을 나름대로 언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전으로 잡을 수 있고<sup>8)</sup> 영웅소설 창작의 하한선은 영웅소설의 집대성으로 일컬어지는 남영로의 옥련몽이 나온 1840년까지로<sup>9)</sup> 잡을 수 있다.<sup>10)</sup>

본고에서는 위와 같은 영웅소설 발달 과정의 시대 구분을 일단 수렴하면서 현수문전의 영웅소설적 位相을 영웅소설 발달의 통시적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해 상한선상에 있는 소대성전, 장풍운전, 장백전<sup>11)</sup>과 하한선상에 있는 옥련몽,<sup>12)</sup> 그리고 그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유충열전<sup>13)</sup> 등을 주된 보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sup>14)</sup>

영웅소설의 내용은 대대 명문 거족의 가문에, 기자정성 끝에 기이한 태몽과 함께 만득자로 태어난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離散하고 고난을 격다가 구원자를 만나 수확하던 중 戰亂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산하여 천하를 평정하고 위기에 처한 황제를 구출함으로써 立身揚名하며, 가족과 재회하여 부귀영화를 자손 만대에 유전한다는 영웅의 一代記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을 크게 몇 단계로 나누어 보면, 1) 出生 段階. 2) 家族離散 段階. 3) 救出養育 段階. 4) 立身揚名 段階. 5) 家族再會 段階. 6) 富貴榮華 段階의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현수문전의 내용을 여섯 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다른 작품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지 그 특징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1) 출생 단계 ; 현수문은 그의 부친 현택지가 마흔이 되도록 子女가 없어

8) 서대석, 앞책, 22쪽.

9) 서대석, 앞책, 262쪽.

10) 류탁일, 『완판방각소설의 문헌학적연구』(학문사, 1983) 245쪽 등을 참조해 보면 영웅소설은 1900년대 초까지도 아주 유행을 했고 특히 방각본 소설이 이 당시에 가장 많이 유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실제로는 이후에도 많은 영웅소설이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본격적인 창작영웅소설의 하한선은 군담소설이 구운몽과 옥루몽의 중간에 위치한 소설이란 서대석의 이론(『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 출판부, 1985, 241-262쪽 참조)을 따랐다.

11) 소대성전, 구활자본 고소설전집, 7, 인천대학 민족문화연구소, 1983.

장풍운전, 상동, 31.

장백전, 상동, 12.

12) 옥련몽, 상동, 10.

13) 유충열전, 상동, 11.

14) 여기서 사용된 보조 자료들은 다음 항목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고민하다가 子女를 보기 위해 名山大川에 정성을 드리고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던 중, 어느 날 시주를 청하는 천축국 화주승에게 많은 시주를 하고 子女를 발원한 결과 부부가 奇夢(선관 하강)을 꾸고 열달만에 만득한 아들이다.

이러한 현수문의 출생 과정은 영웅소설에 두루 퍼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話素가 조금씩 변개되는 등 작품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본고에서 보조 자료로 삼은 작품 중에서도 장풍운전은 아예 子女를 발원하는 話素가 없고 유충열전, 옥련몽은 子女 발원의 話素는 있으나 화주승에게 시주하고 발원하는 話素는 없다. 다만 소대성전의 주인공 소대성의 출생 단계는 시주의 액수와 화주승이 머물고 있는 절의 명칭, 그리고 기자정성을 드리는 방법과 표현의 사실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현수문전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주인공 출생 단계는 소대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여타 영웅소설의 주인공 출생 단계를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결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家族離散 단계; 현수문의 家族離散은 부친과 모친의 離散이 2단계에 걸쳐 차례대로 이루어진다. 즉 父의 離散은 연평왕의 역모와 이에 연루를 주장하는 백관들의 무고에 의해 父가 귀양감으로써 離散되고, 母와의 離散은 윤남왕의 侵犯時 叛軍이 수문을 납치해 가다가 구계산 아래에 버리고 감에 따라 離散하게 된다.

이러한 현수문의 부친과의 離散 과정은 꼭 같지는 않으나, 유충열전, 조웅전 등 현재제 개조형 영웅소설<sup>15)</sup>의 주인공들이 정적들의 모함과 질시에 의해 부친과 離散한다는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하겠다.

모친의 離散 과정은 장풍운전의 장풍운이 가달의 침범시 모친과 더불어 구계산 아래에 피난할 때 풍운의 상모 비범함을 보고 叛軍이 납치해 가다가 퇴각할 때 道中에 버리고 감으로써 모친을 이별한다는 내용<sup>16)</sup>과 거의 동일하다.

15) 김수봉, 군담소설의 유형설정과 그 특징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25쪽.

16) 장풍운전, 앞책, 5-7쪽 참조.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家族離散 과정은 유충렬전 등의 현재제 개조형 영웅소설 및 장풍운전의 家族離散 과정을 중심으로 여타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家族離散 과정을 종합하여 결구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 救出養育 단계; 현수문의 구출양육 단계도 2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단계는 현수문이 운남의 叛軍에게 납치되어 잡혀가다가 버려졌을 때 일광대사의 구원을 입고 일광대사로부터 천문지리와 육도삼략 등을 배우며 때를 기다리다가 9년만에 세개의 봉서를 받고 하산한다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현수문이 하산하여 유리걸식하던 중 석참정에게 구원을 입고 석참정의 집에 기식하며, 참정의 후처 방씨의 시기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참정의 전처 딸 운혜와 결혼했다가, 석참정이 죽은 후 방씨의 박해와 수모를 견디다 못하여 갑주와 자롱검을 얻은 뒤, 수문과 그의 처가 각각 스승과 부친의 봉서가 지시하는 대로 차례로 망명도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수문의 구출양육 단계 중 일광대사의 救出養育의 단계는 거의 모든 영웅소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話素이다. 그러나 현수문이 하산할 때 봉서 받는 話素는, 구출자의 성격과 봉서의 사용처는 서로 다르나 장풍운전의 1단계 구출자 즉 이통판(이경운)이 죽으면서 자신의 딸과 사위인 장풍운에게 각각 봉서를 주는 점과 상통한다고 하겠다.

석참정의 구원과 결혼 단계는 소대성전이나 장풍운전에서 이진과 이경운이 소대성과 장풍운을 데려다가 養育하여 부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는 것은 서로 같다. 그러나 주인공을 박대하는 주체가 계모라는 점과 망명도생 중 노자돈을 주는 대상이 화주승이라는 점, 그리고 주인공의 처도 가정을 탈출한다는 점에서는 장풍운전에 더 가깝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1단계 救出養育의 과정은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救出養育의 단계에 장풍운전의 봉서 남김 話素가 첨가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단계 救出養育의 과정은 장풍운전을 중심으로 하여 소대성전을 가미한 내용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만 救出養育의 기간 중에 갑주와 무기를 얻는다는 점이 특이할 뿐이다.

그러므로 현수문의 救出養育 단계는 장풍운전과 소대성전의 救出養育 단계를 중심으로 영웅소설의 보편적인 救出養育의 과정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立身揚名 단계 ; 현수문의 立身揚名 과정은 처음 科擧의 문무양과의 장원급제로부터 시작하여 남만 위유사, 전국순무어사, 문헌각태학사, 대원수 등을 거쳐 최후의 위왕에 이르기까지 그 공적에 따라 순차적 단계를 밟아 승진한다. 그리고 그 공을 세우는 과정도 단계마다 공적의 내용이 다르고 그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

그런데 다른 영웅소설 주인공의 立身揚名 과정은 약간의 예외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인공이 科擧를 통해 立身을 시작한 작품은 진급에 어느 정도 순차적 단계를 밟기는 하지만 그 단계라는 것도 단지 한 두번의 전쟁을 거칠 뿐 순차적인 단계를 차례로 다 밟지는 않는다.<sup>17)</sup> 그리고 황제가 외적의 침입 등으로 위기 일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無名人으로 出戰하여 단숨에 황제를 위기에서 구출하고 적을 토평함으로써 科擧及第 없이 立身을 시작한 작품의 주인공은 진급에 있어서 순차적 단계를 밟지 않음은 물론 단숨에 人臣으로서의 극에 달하는 위치에 오르게 되며, 다만 그러한 자신의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번의 전쟁 과정을 거칠 뿐이다.<sup>18)</sup>

그리고 立身을 위한 전쟁의 방법도 현수문전은 단기전, 매복전, 야습, 거짓 패배, 유인, 화공, 도술전 등 아주 다양한데 비해 황장군전, 옥련몽 등의 예외가 있으나 대부분의 영웅소설은 단기전, 도술전, 매복전, 화공 등 상투적인 몇 가지의 방법에만 의존하며, 그 공적을 쌓는 단계도 현수문전이 위유사, 순무어사 등 다양한 경로를 거치는데 비해 다른 영웅소설들은 소수의 작품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전쟁을 통해서만 승진한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立身揚名 과정은 科擧를 통해 立身을 시작한 영웅소설과 科擧를 통하지 않고 立身을 시작하는 영웅소설의 특성을 종합하여 각각의 성격을 좀더 강화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立身을 위한 방법과 공적을 쌓는 단계도 아주 다양하여 다른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질서를 부여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5) 家族再會 단계 ; 현수문의 가족 재합은 금산사 관광 중 처와의 우연한

17) 이러한 예의 영웅소설로서는 사각전, 장풍운전, 쌍주기연, 장경전 등을 들 수 있다.

18) 이러한 예의 영웅소설로서는 유충열전, 조웅전, 월왕전, 등을 들 수 있다.

만남, 서천에서 모친의 턱밑 검은 흑과 스승의 봉서를 인연한 모친의 상봉, 그리고 歸京 중 모친의 꿈과 스승의 봉서를 통한 부친의 再逢이라는 순차적 단계를 거쳐 마무리 된다.

이러한 家族再會의 과정은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일반적으로 스승 등의 현몽과 이별 당시의 신물 등을 통해 상대방을 확인하고 그로 인해 재합한다는 것과는 방법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그 재합의 순서에 있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스승 등의 現夢이 스승의 封書로, 信物이 어릴적 신체제 특징의 기억 등으로 바뀐 것은 그 방법이 좀더 사실적인 방법으로 약간 변개된 것에 불과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家族再會 話素의 이러한 차이도 다른 작품과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家族再會 과정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이 가지고 있는 家族再會의 과정을 수렴하여 답습하면서 단지, 이것을 사실적인 방향으로 약간 변개시킨 정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6) 富貴榮華 단계; 이 단계는 몇 개의 하위 단계로 나뉘어진다.

첫째, 현수문이 왕이 되어 錦衣還鄉함으로써 계·장모 등에게 은근히 복수하고 위왕에 등극하여 선정을 베푸는 단계. 둘째, 수문이 왕이 된 후에도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황제와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계속해서 황제를 돕고 보호해 주는 단계. 셋째, 황제의 불인함으로 인하여 황제의 멸망을 방관하고 새로 등극한 여진 황제와의 관계 정립 단계. 넷째, 수문이 죽은 후 그 아들 현침이 몽고를 섬겨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수문전의 부귀영화 단계를 다른 영웅소설과 대비해 보면 첫째 단계는 대부분의 영웅소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의 단계와 동일하다.

그러나 둘째 단계는 옥련몽에서 양창곡이 연왕이 된 뒤에도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황제의 부탁으로 출전하는 예가 있을 뿐 다른 영웅소설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특별한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연왕의 출전도 연왕이 실제로 어떤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수문전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으며, 出戰에 있어서도 현수문은 옥련몽의 양창곡보다 그 횡수가 훨씬 많고 또 因果的이란 점에서 옥련몽에 비해 좀더 사실적인 방향으로 확

대되고 변개되었다고 하겠다.

셋째 단계도 기존의 황제 체제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건국된다는 점에서 현체제 부정형<sup>19)</sup>의 영웅소설과 상통하는 점이 있으나, 그 외 다른 영웅소설과는 특이하게 구별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체제 부정형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가 건설 과정과 원인 등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결과 그 자체와 사상적인 측면에서의 영향관계는 서로 맺을 수 있으나<sup>20)</sup> 현체제 부정형이 새로운 創業의 정당성이나 필연성이 결여되어 있는데 비해 현수문전은 새로운 創業을 방관하면서도 핑계야 어떠하든지, 인간의 보편적 심성에 비추어 볼 때 그럴 수 있겠다는 타당성이 인정되는 등 현수문전이 훨씬 인과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단계는 현수문의 아들 현침이 독립된 나라의 왕이 되어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옥련몽에서도 연왕의 아들 양창성이 외적의 침입을 토벌하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진왕이 되는 등 현수문전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그러나 옥련몽의 양창성은 그의 아버지 양창곡의 부귀영화를 장식하기 위해 등장하는 하나의 부수적인 話素에 불과한데 비해 현수문전은 현침의 일생만 독립시켜도 한편의 영웅소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영웅의 一代記를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점에서 내용이 훨씬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의 부귀영화 단계는 영웅소설의 일반적인 부귀영화의 과정을 수렴하고 여기에 현체제 부정형의 결말 양상과 특히 옥련몽의 부귀영화 양상 등을 첨가하여 구체화하고 인과적으로 확대시켜 놓은 모습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현수문전의 내용을 다른 작품과 대비해 보았다.

그 결과 현수문전은 家族再會의 단계만 영웅소설 일반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과정을 답습하면서 부분 부분 특정 작품의 話素를 수렴 내지 차용하여 그 내용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구체화 하는 방향으로 변개 했다고 할 수 있을 뿐, 다른 단계는 특정한 작품과 관련을 맺으면서 여타 영웅소설의 특징을 중

19) 김수봉, 앞 논문, 25쪽.

20) 이에 대해서는 '전도된 군신관'의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이다.



합한 성격을 지닌 후대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었다.

물론 현수문전과 다른 작품의 선후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작품이 다른 특정 작품의 내용을 차용해서 재구성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말기적 영웅소설은 초기적 영웅소설의 화소를 두루 수렴하여 재편하는 것이 보편적인 경향이었음을 고려해 볼 때, 현수문전이 말기적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는 옥련몽과 내용 등이 유사함은 물론, 오히려 옥련몽보다 내용과 구성이 더욱 치밀하고 종합적이며, 또 상서기문에도 그 이름이 없는 점 등에서 일단 후대적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은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사건 전개 과정을 답습하면서 각 단계마다 특정한 작품에 등장하는 재미 있는 話素들을 차용해서 약간의 변개 과정을 거쳐 더욱 재미 있게 한다는 방향으로 종합하여 재구성한 영웅소설로서 옥련몽보다 후대적 면모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영웅소설이라 하겠다.

### III. 構造의 二代記性

영웅소설의 구조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달리 볼 수도 있지만 대체로 주인공, 즉 영웅의 一代記를 근간으로 하는 구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영웅소설의 구조는 개별 작품이 주인공 일 개인을 중심으로 결구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는냐에 따라 또 세분되어질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소대성전, 장백전 등과 같이 주인공의 부모는 주인공의 출생과 혈통 부여에만 관여하고 주인공의 일생에는 구체적으로 간여하지 못하며, 주인공의子女도 주인공의 부귀영화를 장식하는 장식물의 역할만 담당하는 작품군을 개인적 一代記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충열전, 조웅전 등과 같이 주인공의 부모는 주인공의 출생과 혈통부여 뿐만 아니라 사건의 발단과 전개에 원인을 제공하고, 주인공은 그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또 그 주인공의子女는 개인적 一代記 영웅소설과 동일한 역할만 담당하는 작품군을 선대 원인 제공적 一代記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 외

옥련몽 등과 같이 주인공의 부모와 주인공의 관계는 개인적 一代記 영웅소설과 동일하나, 주인공과 그 子女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공의 一代記가 子女의 代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한번 더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작품군은 二代記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웅소설은 주인공과 그 父子 관계에 따라 편의상 개인적 一代記 영웅소설과 선대 원인 계공적 一代記 영웅소설, 그리고 二代記 영웅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一代記 영웅소설과 선대 원인 계공적 一代記 영웅소설은 둘다 代數에 있어서는 一代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代數에 따라 크게 묶어 보면 영웅소설은 소대성전, 유충열전 등의 一代記 영웅소설과 옥련몽 등의 二代記 영웅소설로 나눌 수도 있다.

그런데 현수문전은 앞의 '내용구성의 종합성'에서 본 바와 같이 전반부는 현수문의 一代記를 결구했으며 후반부는 그의 다섯째 아들 현침의 一代記를 다시 결구했다. 물론 현침의 一代記는 출생 단계와 부모 離散을 통한 고난 단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다른 영웅소설 주인공의 一代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현수문이 죽을 때 현침의 여러 형제들을 다 제쳐두고 유독 다섯째 아들 현침을 후계자로 지명한 것과 현침의 새로운 건국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작품의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출생 단계도 一代記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리라 추측된다.

그리고 부모 離散 및 고난의 단계도 부모가 죽음으로써 부모를 離散하고, 사냥 갔다가 말이 제멋대로 현침을 싣고 감으로써 가족을 이별하게 되며 또 집을 나가서는 최공의 집에 안내되어 그의 딸과 혼인하고, 다시 최공의 집을 떠나서는 엄도사를 만나 도술을 배우게 된다는 점에서 볼 때 家族離散의 과정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기는 하나 소대성전 등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난 및 수학의 단계도 因果性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소대성이 격는 고난 및 수학의 단계와 아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수문전은 후반부가 일반적인 영웅의 一代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二代에 걸친 영웅적 一代記를 차례대로 결구함으로써 영웅의 一代記가 반복적으로 두번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현수문전은 영웅의 一代記가 중첩되는 二代記構造를 지닌 작품이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수문전은 옥련몽과 함께 二代記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옥련몽은 1840년 남영로에 의해 쓰여진 영웅소설로서 말기적 작품임을 고려한다면, 二代記 영웅소설은 一代記 영웅소설에 비해 후대적 작품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현수문전도 당연히 영웅소설 중에서는 말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향유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수문전은 옥련몽과 같은 二代記 영웅소설에 속하지만 옥련몽에 비해 상당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즉 두 작품의 주인공인 현수문과 양창곡의 一代記는 둘다 영웅의 一代記라는 점에서 서로 상통한다고 할 수 있지만, 二代에 해당하는 현침과 양창성의 一代記는 서로 큰 차이가 있다.

두 작품을 대비하여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抽出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생 단계를 보면, 현침은 그 출생의 구체적인 내용이 작품에 서술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양창성은 일반적인 영웅소설 주인공의 출생단계와 거의 동일하게 출생 단계가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家族離散 단계와 救出養育 단계를 보면, 현침은 일반적인 영웅소설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가족의 離散 단계가 구색을 갖추었고, 救出養育 단계도 일반적인 영웅소설에 비해 약화되어 있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양창성에게는 이러한 단계가 생략되어 있다.

立身揚名의 단계를 보면, 현침은 갑주와 무기 용마 등을 얻는 과정과 몽고 왕을 도와 천하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 등이 현체제 옹호형이나 현체제 부형형 영웅소설을 닮는 등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입공 과정과 유사하다. 그러나 양창성은 갑주와 용마 등을 획득하는 과정이 생략되었고 입공 과정도 극적인 장면이 부족하며 또 능력의 측면에서도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천하제일인자임에 비해 양창성은 그렇지 못하다.

家族再會의 단계도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주인공이 갖는 家族再會와 같이 극적이지는 못하지만 현침에게는 헤어졌던 가족과의 재합이 있다. 그러나 양창성에게는 현침이 겪은 이별의 과정이 처음부터 없었기에 그러한 재합의 과정도 없다.

부귀영화의 단계도 현침은 일반적인 다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몽고왕이 천하를 통일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움으로써 괴왕이 되어 선정을

베풀고 그 영화를 자손만대에 유전한다. 그러나 양창성은 단지 황제를 도와 외적을 물리치는데 공을 세움으로써 論功行賞에서 진왕이란 작위를 받을 뿐 실제적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도 아니며, 또 그 영화도 그의 부친 양창곡의 부귀영화를 더욱 영광스럽게 장식하는데 보조적 역할을 담당할 뿐 양창성 자신의 자손에 대한 언급은 없는 실정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옥련몽의 양창성은 그 아버지 양창곡의 一代記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부귀영화 단계를 더욱 화려하게 장식하는 하나의 附隨的인 요소로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수문전의 현침은 현수문의 一代記를 서술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독립된 영웅의 一代記를 한번 더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현수문전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두 사람의 영웅적 一代記가 순차적으로 중첩되어 나타나는 二代記 構造를 가졌다는 것이다.

현침과 양창성의 이러한 차이점으로 볼 때 현침은 일반적 영웅소설의 주인공에 비해서는 약간의 미비점이 있으나 양창성에 비해서는 훨씬 완벽한 영웅의 일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수문전은 옥련몽에 비해 훨씬 뚜렷한 二代記 구조를 가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초기 영웅소설은 一代記 영웅소설이고, 중기 영웅소설은 선대 원인 제공적 一代記 영웅소설이며, 후기 영웅소설은 二代記 영웅소설인 점으로 보아 영웅소설의 구조는 一代記 영웅소설에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二代記 영웅소설로 변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수문전은 二代記 영웅소설 중에서도 二代記의 구조가 뚜렷하다는 측면에서 옥련몽보다 오히려 후대적인 성격을 지닌 영웅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수문전의 이러한 성격은 영웅소설이 一代記와 二代記를 거쳐 아직 발전된 적은 없지만 현수문전보다 더욱 완벽하고 독립된 二代의 영웅적 행위를 표현한 二代記 영웅소설이나 三代記 영웅소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수문전의 이러한 성격은 18·19세기에 유행한 작품군 중에서 여러 대에 걸친 한 家門의 興亡盛衰를 다룬 家門小說<sup>21)</sup>과의 相互 影響 授受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

21)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상, 「정신문화 연구」,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통권 44호, 1991) 22.

사해 준다고 하겠다.

#### IV. 顛倒된 君臣觀

조선은 건국과 동시에 유교를 국시로 삼고 주자학적 이념을 윤리적 덕목으로 내세움에 따라 절대왕정과 왕권 지상주의라는 주자학적 이념은 조선조의 정통적인 지배논리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러한 지배논리가 정치 구성원의 의식에 절대적일 정도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君王에 대한 충성은 臣民의 최대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sup>22)</sup>

특히 고려 멸망과 조선의 創業期에는 조선건국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혁명론을 정당화하기도 했으나, 태종이 유독 忠의 미덕을 강조한 이후<sup>23)</sup> 세종-성종의 守成期로 넘어오면서부터는 綱常論이 정당화되면서 君臣間의 의리와 忠誠은 무엇보다 강조되기에 이른다.<sup>24)</sup>

이에 따라 君王과 臣下의 관계에서 臣下는 君王에 대해 절대적이고도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이 있을 뿐, 君王이 자신을 몰라주어도 君王을 원망하지 않고 오로지 君王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충성을 바치고 의리를 지키는 것이 臣下의 도리이자 임무라고 여기게 되었다.<sup>25)</sup>

이러한 사상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한 동안 혼란되기도 했다.<sup>26)</sup> 그러나 집권층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맞아 체제 유지의 필요성으로 인해, 尊周論과 春秋大義를 통한 小中華 의식을 부추김으로써 국민적 불만과 갈등을 국가 밖으로 돌리는 한편 오히려 君臣間의 충성과 의리를 더욱 강조하기에 이른다.

그러므로 영웅소설이 등장하고 유행했던 조선 후기도 그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조선 전기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없었고 사회와 함수관계에 있는 소설

22) 陳德奎, 조선 후기 정치 사회의 권력구조에 관한 정치사적 인식, 『19세기 전통 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고대, 민족문화연구소) 23쪽.

23) 『한국윤리 사상사』(한국정신문화 연구원, 1989) 151쪽.

24) 금장태, 『한국 유교의 이해』(민족문화사, 1989) 67쪽.

25) 『한국윤리사상사』(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25-182쪽 참조.

26) 한우근,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90) 307-380쪽 참조.

속에도 이러한 사회 사상이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sup>27)</sup>

그러나 현수문전에 나타난 君臣觀은 이러한 시대적 사회사상과는 물론, 다른 영웅소설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다.

현수문전의 특징적 君臣 관계를 보여주는 내용을 話素別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신황제 등극 후 한번도 조회하지 않음을 빌미로 신황제가 수문에게 서천 두 곳 중에서 한곳을 반환하고 또 신국 레단을 타국의 例로 할 것을 명하자 현수문이 대로하여 사신을 꾸짖어 보내고 자신이 봉토를 얻게 된 과정을 제시하며 봉토 환수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황제의 혼암무도함을 꾸짖다.

② 황제가 현수문을 문죄하려고 起兵하여 여러 제후국과 함께 위국을 침범하자 수문이 제후국의 군사와 황제군을 격파하고 격파당한 제후국에게 황제에 대한 조공을 폐할 것을 명하다.

③ 황제가 수문에게 패배한 뒤 수문과 화친하고자 세번이나 사신을 보내되 수문은 사신을 방축하고 화친 제의를 거절하다.

④ 흉노 목투의 침입으로 황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수문과 사돈간에 있는 진간이 수문에게 신황제의 구원을 적극 부탁하나 “늑장식을 죽이며 흉노를 체결하야 날을 치니 엇지 혼군을 구하리오 형은 다시 청지말라”<sup>28)</sup>라고 하면서 거절하다.

⑤ 진간의 간절한 부탁에 감동하여 황제를 救援한 후에도 “오날날 천조를 위함이 아니라 선대 유교를 신각하고 송실을 위하야 흉노를 쳐 물리치고 격장을 춤하야 주고 가노라”<sup>29)</sup>라고 하면서 황제를 알현하지도 않고 돌아가다.

⑥ 여진왕이 황성을 범하여 황제가 위기에 빠지자 황제가 수문에게 여러번 구원병을 청하는 사신을 보내나 수문은 자신이 이미 나이가 많고 기력이 쇠하였다는 핑계로 끝내 송나라가 망하도록 방관하다.

⑦ 송이 망하고 여진왕이 황제 위에 올랐을 때도 조회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을 정벌하러 온 여진 皇帝軍을 격파하다.

⑧ 여진 황제를 생포한 수문이 천명을 빙자하여 여진 황제를 돌려보냄으

27) 물론, 홍길동전, 윤영전 등과 같은 소수의 예외도 있다.

28) 현수문전, 앞책, 442쪽.

29) 현수문전, 앞책, 443쪽.

로써 여진 황제가 오히려 일년에 일차식 예단을 가지고 수문을 문안하다.

⑨ 수문이 죽자 그 아들 현침은 몽고왕을 도와 다시 여진 황제를 몰아내고 원나라를 세운 공으로 기왕이 되다.

이상의 ①-⑥에서 본 바와 같이 현수문은 황제가 자신을 몰라 주거나 황제의 명령이 자신에게 불리할 때는 단호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황제가 자신을 징계코자 하면 서슴없이 황제와 맞서 황제에게 대항함은 물론 황제군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황제가 사과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리고 황제가 위기에 처하여 구원을 요청해도 전일의 섭섭함이나 원망스러움을 양감음하기 위해 황제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마지못해 들어주되 황제를 무시하며, 결정적인 순간에는 天命을 빙자하여 방관함으로써 황제국이 멸망하도록 한다.

이러한 현수문의 행위는 조선 시대의 보편적인 君臣間의 윤리관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위로서 조선시대의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이라는 군신 관계에서 벗어나 선별적이고 타산적인 충성과 군신 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도 신성한 것으로 인식되던 황제의 명령에 대하여 자신의 이익과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은 이미 그 전의 절대 왕권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이것은 상호간의 이해 관계와 힘의 논리가 맞아 떨어질 때에만 작용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왕권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줌은 물론 君王에 대한 既往의 관념인 尊嚴性 등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위의 '⑦-⑧'에서는 군신 관계에서 君王은 위에 있고 臣下는 밑에 있으며, 臣下는 君王에게 충성을 바치고 문안을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君臣間의 예의를 철저히 파괴한다. 즉 예단을 드리고 문안을 드리는 것도 반드시 臣下가 君王에게 드려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이 君王이라도 臣下보다 힘이 없으면 오히려 君王이 臣下에게 예단을 드려야 함은 물론 문안도 드려야 된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君臣 관계이자 顛倒된 君臣 관계를 보여준다.

현수문전에 나타난 君臣 관계는 조선시대의 보편적인 윤리 사상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이념보다는 현실적인 힘을 중시하는 새로운 사상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⑥-⑦'과 '⑨'에서는 조선 건국 초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한 때 정당화 되기도 했으나 조선이 안정되면서 강상론에 의해 극히

금기시되어 왔던 天命을 빙자한 易性革命的 創業이 나타난다.

그런데 天命이란 周代에 정치적 개념으로 기초가 확립되어 공자, 맹자를 거쳐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으며, 한·당·송에 이르러서는 宇宙論의 해석과 아울러 철학적 개념으로까지 발전한 儒家哲學의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天命은 지상에서 德이 있고 어진 사람에게 天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한다는 神權政治觀의 주축이 된다.<sup>30)</sup> 곧 지상의 군주를 天子라고 한 것은 天帝의 아들이란 뜻으로 天帝가 직접 백성을 다스리지 않고 천자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그 잘잘못만을 감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을 계승한 공자와 맹자도 위정자 자신이 바르지 못하면 백성이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잃은 군주는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야 마땅하다고<sup>31)</sup> 함으로써 황제가 덕과 민심을 잃었을 경우 易性革命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공자와 맹자의 이러한 사상은 天命을 받은 者의 放伐를 통한 혁명과, 민심을 얻은 者에게 禪讓으로만 세습 왕조를 교체할 수 있음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국가 질서를 안정시켜 왔으며, 봉건 체제를 지속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했다.<sup>32)</sup>

그러나 현수문전에서의 天命은 易性革命을 정당화 하는 절대적 조건으로만 작용할 뿐 그 상대적 기능은 전혀 무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易性革命의 정당화 방법도 天心 즉 民心이 易性革命者에게 돌아갔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고 다만 현수문이 여진왕을 사로 잡았다가 놓아 줄 때 “면치 무도홀 쏜더러 甸의 임의 너진에 도라갓슴미 감히 甸의를 역지 못하야 순이 도라보느거니와”<sup>33)</sup>라는 대목과 엄도사가 현수문의 아들 현침에게 몽고왕을 도와 원나라를 세우도록 권할 때 “너진이 십팔년 후면 몽고의게 망하리니 그뒤 몽고를 섬기면 甸하 엇기를 엇지 근심하리요”<sup>34)</sup>라는 대목 등에서 막연

30) 儒教事典 編纂委員會 編, 儒教大事典 上, (박영사, 1990) 1530쪽.

31) 『論語』子路篇,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行’

『孟子』梁惠王 下, 王顧左右章 第六 및 聞誅一夫章 第八 등 참조.

32) 금장태, 한국유교의 제도화 현상, 『대동문화연구』 16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82) 11쪽.

33) 현수문전, 앞책, 462쪽.

34) 현수문전, 앞책, 468쪽.



하게 나타날 뿐이다.

이처럼 현수문전의 天命은 단순히 현수문이 판단한 天命이거나 현침의 스승 엄도사가 판단한 天命일 뿐 작품 속에서는 天命임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에 나타난 天命은 易性革命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天命이란 美名 아래 易性革命的 創業이 정당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웅소설은 현수문전 외에도 현체제 부정형에 속하는 장백전, 유문성전, 음양삼태성전 등의 작품이 더 있다.

그러나 장백전과 유문성전은 원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명나라를 세우게 되는 易性革命을 다루었고 음양삼태성전은 당나라가 망한 이후 5대 10국이란 혼란된 상황 속에서 北漢이란 외적이 중원을 침범함에 조광윤을 도와 이를 평정하고 천하를 통일하여 송을 創業한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현수문전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즉, 조선 후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인하여 지배체제의 한계가 노정되면서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지배계층에서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국민적 사상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조선 왕조는 尊周黜夷를 중심으로 한 春秋大義를 거국적 정치이념으로 삼아 小中華라는 자부심 아래 周-唐-宋-明으로 이어지는 중국 왕조를 事大해야 될 中華에 해당하는 정통 왕조로 보고 金-元-淸으로 이어지는 왕조를 배척하고 극복해야 될 夷狄의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이런 시대적 분위기와 정치적 상황에 의해 正祖의 명으로 편찬된 『尊周彙編』에서는 명나라가 사실상 멸망하였지만 명나라 황실에 의해 저항이 계속되는 동안은 명나라는 존속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기조차 했다.<sup>35)</sup>

이처럼 조선 후기는 병자호란에서의 굴욕적 패배 등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하여 金-元-淸에 대한 민족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던 시기였으며 이러한 민족감정의 반작용으로 周-唐-宋-明에 대한 事大思想은 더욱 고조되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sup>36)</sup>

35) 금장태, 앞책, 189-197쪽과 정옥자, 정조대 대명의리론의 정리 작업, 『한국학보』 六十九輯(일지사, 1992. 겨울)을 참조.

36) 한우근, 『한국통사』(을유문화사, 1990) 288-290쪽 참조.

조선 후기의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민족감정과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장백전 등에서 타도해야 될 대상이 유독 夷狄에 해당하는 元이거나 북쪽 오랑캐였으며 새로 創業한 나라가 明이거나 宋이었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장백전 등의 創業은 易性革命에 의한 새로운 創業이라기보다는 오랑캐의 침입으로 인해 겉으로는 중국의 정통 왕조가 멸망했으나, 그 민족이 멸망하지 않았고 저항의 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기에 그 정통 왕조를 위한 꿈이 밀로 잠적하여 갈무리되었다가 힘이 축적되고 기회가 왔을 때 그 힘이 분출하여 증원을 침범한 오랑캐를 물리치고 새롭게 증원을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장백전 등은 표면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영웅소설과 차이가 나지만 시대적 배경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현체제 옹호형 영웅소설과 동일한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장백전 등에 나타난 새로운 創業은 액면 그대로의 創業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조선 후기에 형성된 청나라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을, 元나라를 멸망시키고 명나라를 創業하는 것으로 우회하여 표출함으로써 尊周黜夷와 春秋大義 사상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수문전은 타도의 대상이 大宋이었고 새로 건국된 나라가 여진 내지는 元이라는 점에서 장백전 등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創業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수문전은 春秋大義와 中華思想이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힘의 원리에 의해 새로운 나라가 創業될 수 있다는 군신 관계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수문전에서는 既往의 절대적 왕권에 대한 존엄성이 무너짐은 물론,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복종과 충성이란 절대적인 君臣關係가 打算의이고 상대적인 군신관계로 전환되었으며, 君과 臣의 行爲 樣態와 상호 작용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逆轉된 군신간의 행위 양태를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全般을 통하여 논의조차 금기시되어 왔던 易性革命이 힘의 논리를 바탕으로 天命이란 美名 아래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수문전은 조선시대 전체를 관류하는 전통적인 君臣觀을 벗어남은 물론, 그것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顛倒된 君臣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수문전의 향유시기인 조선 말기는 임·병 양란 이후 경제의 파탄<sup>37)</sup>과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양반정치의 붕괴<sup>38)</sup> 및 외세의 침입에 따른 민족적 대응 등으로 인하여 민중의식의 성장과 자아각성을 가져왔던 시기였음을<sup>39)</sup> 감안해 본다면, 현수문전에 나타난 顛倒된 君臣觀과 世界觀은 朝鮮 末期에 새롭게 형성된 민중들의 자아각성과 現實認識의 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 V. 마 무 리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현수문전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다른 여러 영웅소설의 내용을 차용하여 재구성한 종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또 그 종합성으로 인하여 다른 작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작품의 구조는 초기 영웅소설들이 一代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해 현수문전은 영웅의 一代記 구조가 중첩된 二代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후기 영웅소설이라 할 수 있는 옥련몽과 유사하나 옥련몽보다 二代記性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옥련몽보다 오히려 후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수문전의 군신관계는 무조건적인 복종과 충성만이 강조되던 절대적인 왕권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힘의 논리에 의한 타산적이고도 상대적인 군신관계로 전환됨은 물론, 天命이란 美名 아래 역성혁명조차 정당화됨으로써 조선 시대의 전통적인 군신관계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전도된 군신관을 보여준다. 현수문전의 이러한 군신관계는 조선 말기에 새롭게 형성된 민중들의 자아각성과 현실인식의 한 결과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볼 때 현수문전은 영웅소설의 발달 과정상 一代記 영웅

37) 정석중, 『조선후기 사회변동연구』(일조각, 1991) 177-300쪽 참조.

38) 『조선신분사연구』, 梨花女大 史學科(법문사, 1987), 152-172쪽.

39) 강만길, 『한국근대사』(창작과 비평사, 1985).

소설에서 三代記 영웅소설(발전된 적 없음)로 넘어가는 교량적 위치에 있는 二代記 영웅소설의 완성 내지는 말기적 작품이라 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성격은 조선 후기의 가문소설과 상호 영향 수수 관계를 상정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시사해 준다고도 하겠다.

끝으로 이 논문을 쓰는데 아낌 없는 지도조언과 비판을 보내 주신 부산대학교 이현홍 교수님과 부산 외국어대학교 정산진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